

쇼핑몰 입점 경쟁 뜨겁지만 과제 ‘첩첩산중’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거치면서 광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복합쇼핑몰 유치전이 본격화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신호탄을 쏘면서 유통업체간 경쟁에 불이 붙은 것으로, 갈등만 반복됐던 복합쇼핑몰 입점에 속도가 붙게 됐고 방식 공방터, 어등산 관광단지 활용 등 해묵은 현안에 대한 해법 도출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중소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비롯, 근대 시설물 보존, 난개발 논란, 시민 이익 극대화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잖다.

복합쇼핑몰 유치의 최대 난제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중소상인과의 갈등이 우선 꼽힌다.

광주지역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체 사업체 종사자 48만7,364명의 39.6%를 차지하는 19만2,858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체 11만4,143

개의 사업체 중 소상공인 사업체가 9만7,138개로 전체의 85.1%를 차지하고 있다.

복합쇼핑몰 유치를 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반대 여론이 불보듯한 경제지형으로, 상권 박탈을 우려하는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 마련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역 소상공인들은 “인구 유입이 활발한 관광도시가 아닌 만큼 시민이 소비할 수 있는 총량이 한계가 있다”며 “소비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지역 균형발전 저해는 물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낙점될 경우 대상으로 꼽은 북구 임동 옛 전남방직·일신방직 공장 부지 내 근대 시설물 보존도 풀어야 할 숙제다.

옛 전남방직·일신방직 부지는 1935년 일본 방직업체가 설립한 공장이 모태로 1934년 중연방직(가네보 방직)으로 출발했다.

전남·일신방직 근대 시설물 보존

중소상인 상생·난개발 논란 부담

공공·사업성 조화 방안도 난제

일제 강점기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근로자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대표적인 근대산업 문화유산이다. 현재까지 전남방직·일신방직에 보존된 건축물만 총 259동에 달한다. 1930년대 지은 근대건축물 4동과 1950년대 건립한 22동을 비롯해 1960~1980년대 지은 건축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광주시는 방직공장터 개발과 관련, 근대 건축물 보존과 함께 도시 경쟁력 제고, 아파트 위주가 아닌 상업·문화 융복합 개발, 국제적 수

준 호텔 건립, ‘라키비움’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건립 등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남·일신방직 부지의 경우 관련 업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등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서 “여러 업체를 접촉하고 있다. 다만, 이날 현재까지 사업제안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없다”고 말했다.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최적 방안 도출도 만만찮은 과제로 지적된다.

광주시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국가 주도형 복합쇼핑몰을 계획하고 있다. 자체 예산 절감은 물론 신속한 추진을 염두한 것으로, 민간 자본으로 지어지는 쇼핑물 주변의 공적 인프라를 국비 등을 투입해 총출하게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대선 이슈로 떠올랐던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련, 강 시장은 후보자 시절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닌 복합 문화공간인 만큼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지역 자원과 연결할 수 있도록 복합쇼핑몰은 도심으로, 창고형 할인매장은 도심 외곽, 필요하다면 전남 경제지역 또는 전남에 위치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온 민선8기 인수위원회는 7일 최종보고회에서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전체적인 현안 추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는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물류망 구축, 상생 자금 조성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시장 인수위가 제시하는 쇼핑물 유치 방안에 따라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전남도의회 개원식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6일 오후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남도의회 제12대 개원식을 마치고 서동욱 도의회의장,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함께 개원을 축하하는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체계적 갯벌 보전관리 나선다

관리위원회 발족... 19명 구성

정책 자문·현장 소통창구 역할

전남도가 체계적 갯벌 보전관리를 위해 정책 자문과 현장 소통창구 역할을 할 ‘전남도 갯벌 관리위원회’를 6일 발족했다.

갯벌관리위원회는 대학, 도의원,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광주전남연구원, 민간단체 등 해양환경·생물·문화·교육, 세계유산 등재 분야 등 민간산학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다.

성됐다.

지난 4월 제정된 ‘전남도 갯벌 보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 임기는 2년이다. 전남도 갯벌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새로운 시책 발굴 등 갯벌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자문을 한다.

특히 국립갯벌습지지원 기본구상,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와 관련해 현장과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개발압력에 대한 갯벌 보전관리 문제에도 목소리를 내게 된다.

전남도는 위원회 발족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도 갯벌보전관리 정책방향과 현안 ▲국립갯벌습지지원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한국 갯벌의 90%를 차지하는 전남 갯벌의 의미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는 국제사회로부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갯벌관리위원회와 함께 체계적 갯벌 보전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지방세 체납자 수입·해외직구 물품 압류

도, 294명 관세청 위탁

앞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사거나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즉시 압류조치를 받게 된다.

전남도는 6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그들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체납처분을 위탁한 체납자는 2021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294명이며, 이들의 총체납액은 137억원 규모다.

압류대상 물품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가져온 수입 물품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 ▲무역계약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 등이다.

전남도는 또 올해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이 발송된 286명(총체납액 84억원)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16일 명단공개와 동시에 관세청에 수입물품 압류를 추가로 의뢰할 계획이다.

김기홍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총출한 행정제재에 이어 수입물품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3차 관광진흥기금 용자지원 추진

도, 최대 30억 0.5% 금리

전남도는 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의 경영안정을 돕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 3차 관광진흥기금 용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광진흥기금 용자지원 사업은 도내 관광 숙박업과 펜션업, 야영장업과 한옥체험업, 여행업 등이 대상이다. 민간 관광사업의 시설 확충 및 운영에 저금리 용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용자 규모를 70억 원으로 배정했다. 대출금리는 2022년 용자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추가감면을 통해 0.5%(3개월 변동금리)로 적용한다.

대상 업종과 사용 목적에 따라 용자한도는 1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이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4년 거치 7년 균분상환까지 있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사업체 소재지 시군의 관광부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용학 전남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도내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금리를 0.5%까지 줄이고 용자 한도도 3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며 “전남 방문의 해 운영에 발맞춰 관광객 수용태세 대비를 위한 사전 준비와 투자가 필요한 만큼 도내 관광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에서 사업 파트너를 찾습니다

“개발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계신 분”
 “개발 사업 부지를 증계하고자 하시는 분”
 “소유하고 계신 부지의 개발 파트너를 찾는 분”

성공을 위해 함께하는 골드클래스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골드클래스(주)
 보광종합건설(주)

■ 문의 : 062) 233-3999 (내선 500, 503)
 010-3637-3735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화정동)